



우리 기술에 의해 건조된 두번째 잠수함 「崔茂宣함」이 지난 8월 7일 경남옥포 대우조선소에서 金泳三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權寧海 국방장관, 金弘烈 해군참모총장, 金宇中 대우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되었다

한국 해군 본격적인 잠수함시대 개막

3번째 잠수함「崔茂宣함」진수

이 날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오늘 진수하는 최무선함과 앞으로 계속될 해군력 증강계획은 해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게 될것』이라고 전제하고, 『현대 조선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잠수함을 또다시 우리 손으로 건조해 진수하게 됨으로써 우리 조선기술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최무선함은 수상속력 14노트, 잠항속력 22노트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위스키)급과 R(로메오)급 보다 2배정도 빠르고 소음이 적다.

「최무선함」은 장보고함, 이천함과 같은 1천2백톤급 209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실전배치중인 동급 잠수함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이 운용중인 잠수함보다 작전수행능력 및 제반성능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무선함」의 진수로 지난 6월 2일 취역한 장보고함과, 우리 기술에 의해 건조된 「이천함」을 포함, 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 해군은 이를 계기로 처잠수함전은 물론 주요 해역방어 및 수중활동을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등 공중·수상·수중을 작전공간으로 활용한 명실상부한 입체작전 전략개념을 점차 가시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수중전력에 대한 대응책과, 21세기를 맞아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할 국제적 해양전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韓·美 고위급 국방 실무회의 열려...

오늘 11월초 서울에서 개최될 제25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실무분과위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양국 신정부 출범후 최초로 양국의 고위급 국방실무자들이 대거참석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안보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선진 5개국과 체결되어 있던 품질보증협정을 미국과도 체결하여 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절차가 간소화되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방산업체에서 정비한 미군항공기에 대한 품질보증을 한국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수행하게 되어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측에 5~8% 가량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산제품의 품목수를 현재의 61개에서 26개로 대폭줄이기로 합의함으로써 로열티 면제품목은 39개 품목에서 59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106밀리 무반동총등 18개 품목은 로열티 부과 품목에서 아예 삭제됐다.

또한 KFP로 추진되는 F-16항공기 엔진부품 국산화 관련 기술이전 사항중 美측 통제기술의 한국이전문제와, 도태된 장비의 잉여품 처리방안 및 장차소요되는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협력 방법을 논의하였다.

금번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들은 제 25차 韓·美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가시화된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

종합군수지원 (ILS) 실무자 소집교육 실시

육군 은 종합군수지원(ILS)업무의 체계적 수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종합군수지원실무지침서(93. 7. 1)」를 발간, 이 지침서를 중심으로 업무절차 숙달과 상호업무이해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군수사령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대별 업무발전과제 검토결과 발표, 실무지침서교육, 사례토의, 그리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주관한 육본군수참모부 김광철 장비처장은 "ILS의 중요성은 모든사람이 인정하면서도 깊이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각종 관리기법을 충분히 습득 활용해야만 군수지원의 제반문제점 해결



이 가능하고, 무기체계의 성능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군과 산업체의 실무자가 자주 국방력증강이라는 동일목표로 함께 생각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기회가 되었다. <明>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정책

— 韓完相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말하는 통일 3단계 3기조 —

* 3단계 통일방안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1민족 1국가로의 통일

* 3단계 통일방안 실현 정책기조

1. 민주적 국민합의의 정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자발적인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강력 추진
2. 공존공영의 정신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봉쇄시키지 않고,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교류, 협력하며, 함께

번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추진

3. 민족복리의 정신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통일정책 추진

— 93. 8. 4 외신기자회견 내용중에서 —

21세기 태평양시대 대비 해양력 발전 방안 모색

- 제3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현황리 개최 -



국내외 학자 30여명이 참가하여 태평양지역 해양안보,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군사전략, 한국해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해양력과 기술발전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해양관계 국내외 저명인사 1,000여명이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였다

「해양 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한 제3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움이 8월4일부터 5일까지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김홍열 해군참모총장(기조연설)

한반도 주변 해역은 각국의 해군력이 밀집되어 있는 전략적요충지로서 향후 해상교통로의 보호, 해양자원의 개발등과 관련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안보환경」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건한 해양력과 해군력은 동북아의 신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민족번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에 살면서도 대륙지향적인 사고에 편향되어 있었던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미래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해양력 건설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 이정민 박사 (세종연구소)

2000년대는 모든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대서양권에서 태평양권으로 이동하게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가 그 중심지역으로

태평양시대의 찬란한 개막과 지속적 번영을 위해서는 우세적인 해양전력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해양통제와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해양력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JACQUELYN DAVIS 박사 (I.F.P.A)

미국은 해군력의 발전계획을 향후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비한 미사일 방위능력 향상, 해군과 타군 및 동맹국과의 합동·연합작전능력의 향상, 은밀성 및 감시능력 제고, 우주전쟁능력, 미사일 방위, 항해자료 획득,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인공위성의 방위지원능력 향상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영오 제독 (해군연구위원)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해군의 임무는 경제번영과 평화적통일, 태평양시대의 책임있는 역할등을 목표로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통제와 세력 현시(顯示), 해군주둔 등에 기초한 평시전략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한국해군의 세력구조는 새롭게 정립된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항공모함 1척, 유도탄 구축함 2척, 유도탄호위함 4척·핵추진 잠수함 2척씩으로 구성된 3개(동·서·남해안)의 항모기동함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기동함대를 한국본국으로 부터 반경 1천 마일내에서 호위할 수 있도록 유도탄 구축함 2척과, 유도탄 호위함 4척씩으로 구성된 적어도 5개의 수상함전대가 있어야 합니다.

* 김재복 교수 (해군사관학교)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전자기술, 컴퓨

터기술을 응용한 선박의 설계와 생산의 자동화, 선박운항의 자유화등과 같은 조선기술의 발전은 신형식 선박의 개발과 아울러 경제적인 선박의 건조는 물론 특수한 상황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군함까지도 더욱 고성능화, 고신뢰도화, 고지능화 될 것입니다. *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産·學·研 협동으로 ...

- 제3회 기초연구결과 발표 및 産·學·研 협동 심포지엄 -

국방 과학연구소는 산·학·연 협동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국방기초 과학기술 정보교환 및 연구협력을 증진하고자, 8월 24일에서 9월 3일까지, '90년부터 연구한 84개과제의 기초연구결과발표회 및 국방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첫날 열린 산·학·연 협동심포지움에서 황해웅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전용기술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민·군 共用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산·학·연 및 군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국과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천성순 한국과학기술원장과 김호길 포항공과대학장, 정근모 고등기술연구원장,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천길성 국과연기술연구본부장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연사들은 국방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산·학·연



협동체제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 대학 기초연구활성화와 연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그리고 이를위해서 연구개발투자비의 증액을 강조하였다.

금번 발표회와 심포지움을 계기로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그리고 군과의 유대와 유기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연구능력의 극대화와 산·학·연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된다. <明>

제12대 국방과학연구소장에 黃海雄박사 취임



프로필
黃海雄 소장

가족 : 최정옥 여사와 2남 1녀
취미 : 정구
학력 : 육군사관학교 (18기)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 석사
미사추세츠 공학 박사
약력 : 육사 병기공학 교수
國科研 시험평가단 단장
國科研 시험본부장

黃海雄 신임소장은 1977년 국과연에 입소하여, 시험평가단 단장, 시험본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뒤 8월 11일 소장에 취임하였다.

이번 인사는 국과연에 오랜동안 몸담고 있었던 내부인사의 승진 임명이란 점과, 黃 신임소장의 국방과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 두터운 신망 등으로 국과연의 위상提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